

‘의회 배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출범부터 ‘배격’

“광주·전남발전연 통합 사전협의 안했다” 시·도의장 불참 시사

내일 나주 콘텐츠진흥원서 출범식... 14개 과제 본격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변영을 위해 추진중인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이 뼈격거리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 의회 의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시도가 상생 발전을 위한

면서도 정작 한 축인 의회를 경원시하고 배제하는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영표 시의회의 의장과 명현관 도의회의 의장은 오는 1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릴 광

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양 시·도가 이날 출범식 이후 지방 선거 과정에서 합의한 14개 검토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서 시·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상생 발전위원회 출범에 시·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도의회 의장이 불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선언에 대한 절차 과정때문이다. 시·도의 연구원 통합은 상생안 협의에서 가장 실

현 가능성이 큰 의제로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연구원 통합에 앞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통합 선언부터 하게 되면서 의회의 대표에게 서명부터 강요하는 셈이 된 것이다. 조영표 광주시의회의 의장은 “시도 연구원의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조례 개정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회의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들러리 세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의 의장은 “발전연구원 통합의 경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등 사전에 의회와 협의

가 필요한데도 이러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측은 시도 의장들에게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는 우선 상생협의안에서 제외된 뒤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의장들의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주시 관계자는 “우선 통합 선언을 한 뒤 의회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무원 연금 개혁 첫 회의 안행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하는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청사에서 열렸다. 박경국(왼쪽 두 번째) 안행부 제1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빨난 교육감들 기재부·국회 방문 항의

교육부,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예산 국고 부담 요구 목상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를 막을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찾기로 했다.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실패스러운 답변만 돌아와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위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등 임원단은 2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파탄사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면담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임원단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이니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국고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광주일보 23일자 1면 참조> 그러나 황 장관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교육감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는 교육부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촉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방문기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등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됐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총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 국고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통과된다면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 쌀 생산량 작년 보다 감소

총 생산 늘었지만 재배면적 줄어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423만t보다 1.8% 감소한 415만t 수준이 될 것이라고 29일 전망했다. 10a당 쌀 생산량은 태풍 피해가 없어 풍년이었던 지난해 508kg와 비슷한 509kg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최대·최소 생산년도를 제외한 3년 평균치 495kg보다 많은 풍작이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83만3000ha에서 81만6000ha로 2.1% 감소함에 따라 총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 관측이다. /연합뉴스

전남개발공사 “4년간 1118억원 부채 감축하겠다”

2017년까지 추진계획 공시

남악골프·영산호휴게소 부지 등 매각

전남개발공사가 올해 483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1118억원의 채무를 갚는 부채감축추진계획을 공시했다. 공사 측은 올해 감정평가액 각각 176억원과 78억원인 남악골프와 영산호휴게소 부지 등 보유자산을, 오는 2017년까지 미분양자산을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35.9%인 부채비율은 오는 2017년까지 10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주요 관리대상 부채인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매각 여부, 사업비만 5280억원에 이르는 신규사업인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 1302억원(자산 6188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 6846억원(1조1882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2006년 남악신도시 현물출자 시 인수한 486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2009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2010년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맡으면서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각각 1000억원과 1985억원이 투입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여수경도관광단지의 경우 공사채 상환기한인 2019년까지 분양 활성화대책, 투자 유치 및 매각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지난 2010년부터 땅끝호텔, 무안공항 면세점, 영산재난호호텔 등 관광시설에서 잇따라 손실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부채감축의 걸림돌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연도별 예산절감계획을 시행하고, 전남도 및 유관기관 수탁 사업 유치·관광운영 사업 매출액 제고·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의 전남개발공사 재무위기관리 TF팀을 부채관리위원회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분기별로 부채감축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한 뒤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참여혁신단장 김재철

임기 2년·4급 서기관 대우

광주시는 29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와 참여혁신단장 김재철(53)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장 문화사회정책 연구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원 조화를 거쳐 1일부터 근무하게 되며, 4급 서기관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봉 상한선은 7690만원이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아온 박 신원 단장은 30%에 가까운 임금 삭감에도 ‘노사정 화합을 통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회 조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표로 전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박 단장이 오랜 노동계 활동의 경험을 살려 사회통합과 노동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



박병규 단장



김재철 단장

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혁신단을 이끌 김재철 단장은 광주발전연구원에서 20년 넘게 광주의 주요 현안을 연구해 왔으며, 특히 사회·문화 관련 실력파로 통한다. 한편 사회통합추진단은 사회통합과 노동정책, 비정규직 문제 등을, 참여혁신단은 혁신정책과 시민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다루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4 우리지역 명산

‘무등산의 사계숲 바로알기’

세광학교·지혜학교와 함께하는 숲길탐방

일시 | 2014년 10월 2일(목)
장소 | 장흥 우드랜드 일원

주최 사단법인 광주학교
주관 사단법인 광주학교 · 62 광주일보사 · 에너빌
후원 복권위원회 · 산림청 · 녹색시업단
문의 062.385-1417

※ 본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녹색자금)의 지원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